

---

# 2022년 제11호 방송심의보고서

---

2022. 3. 11. ~ 3. 17.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톡톡 사이다 경제		
방송일자	2022. 03. 11.	시청률	0.000

### 【총 평】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및 중증환자와 사망자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고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강력하게 규제해 왔던 방역체계가 전반적으로 완화되고 있음을 전했다. '경제&이슈'에서는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 경제공약 집중 분석'을 통해 경제공약 내용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과제 등을 다각도로 살펴보았다. 이 외에도 부동산 정책, 일자리 정책, 출산·양육 지원 정책, 그리고 경제 정책 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을 소개해 주목도를 높였다. '알뜰신잡'에서는 취업준비생에 필요한 정부 일자리 안내,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유익한 취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청년센터에 대해 소개했다.

### 【구성 및 내용】

WHO가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지 2년째 되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수가 확연하게 감소하는 추세이며 위중증 환자, 사망자 역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에 시민들의 생활을 강력하게 통제했던 방역의무 등도 조금씩 해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3월 10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2만 7,549명을 기록했다. 국내 전문가들에 따르면 빠른 경우 다음 주 정점을 찍고 감소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5~11세 고위험군 어린이들에게 백신을 우선 접종하는 방안도 발표될 계획이다.

'경제&이슈'에서는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 공약을 살펴보았다. 코로나19 극복 긴급 구조, 포스트 코로나 플랜을 마련한다. 이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대규모 추경 편성이 전망되며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심리상담 디지털 치료제 무상지원과 건보급여체계에 정책 수가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또한 임기 5년간 25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은 130만 가구 이상 최대 15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런 공급은 특히 민간분양에 대폭 방점을 두고 있다. 청년층을 위한 청년 원가주택 30만 가구를 공급하고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역세권 첫 집 20만 가구도 공급할 계획이다. 더불어 종부세,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

출산·양육 지원 정책은 모든 난임 부부에 치료비 지원과 난임휴가를 3일에서 7일로 확대하고 임신·출산과 직접 관련 있는 모든 질병의 치료비 지원 대폭 확대한다. 이러한 경제공약이행을 위해서는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이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이며 일부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알뜰신잡'에서는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온라인 청년센터를 상세하게 안내했다. 온라인 청년센터는 각종 청년정책 정보를 소개하고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심리 검사, 상담,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채용 트렌드 분석, 정부 일자리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청년 상담실은 메신저, 전화, 게시판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한다.

프로그램	국민리포트		
방송일자	2022. 03. 11.	시청률	0.000

## 【총 평】

첨단 기술이 우리 일상에 자리 잡아가고 있는 모습을 '비대면 시대 속 로봇 활용 스마트 상가 활기'와 '수소전기차 시대 성큼, 보급 확대 본격 시동' 등을 소개해 시선을 끌었다. 이 밖에 '범죄 사각지대 없앤다, 전국 첫 예측범죄지도 구축'과 '봄 내음 물씬, 남부 지방 참썩 수확 한창', '찾아가는 코로나19 외국인 예방접종 실시'는 각 지역의 다양한 생활 정보를 유익하게 소개했다. 또 '미래유산 서울의 대장간 무쇠장인 역사가 되다'는 사라져 가는 문화를 접할 수 있는 현장을 볼 수 있어 흥미로웠다.

## 【구성 및 내용】

- 비대면 시대 속 로봇 활용 '스마트 상가' 활기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에 등장한 바리스타 로봇과 방역 로봇, 물류 로봇을 소개했다. 이 로봇은 대전시가 비대면 소비 확산에 맞춰 추진한 스마트 상점가 조성 사업으로 AI와 5G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로봇의 융합 모델 실증 사업으로 도입되었다.
- '수소전기차 시대' 성큼, 보급 확대 본격 시동  
경기도 용인시가 수소전기차 시승행사를 열었다.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주목받는 수소전기차 시승 행사에 참여한 시민이 수소전기차에 앉아 조작 방법 설명을 듣고 시동을 걸어 보고, 진동이나 소음을 거의 느낄 수 없어 만족감이 높다고 말했다.
- 범죄 사각지대 없앤다, 전국 첫 '예측범죄지도' 구축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는 9개 지점에 설치된 23대의 방범 카메라가 오가는 차량과 사람들의 움직임을 파악한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의 예측범죄 시스템은 관제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범죄를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사생활 보호가 과제로 남아있다.
- 봄 내음 물씬, 남부 지방 '참썩' 수확 한창  
전남 함평의 농촌 마을에서 참썩 수확이 한창이다. 함평군은 지난 2013년부터 참썩을 겨울 농한기에 틈새 작목으로 육성했다. 노지 썩과는 달리 하우스에서 재배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역 농업기술센터의 도움으로 유기농 재배를 실시하고 있다.
- 찾아가는 '코로나19 외국인 예방접종' 실시  
천안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무료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실시했다. 이번 예방접종은 불법 체류로 인한 단속을 우려해 접종을 꺼리거나 사업주의 접종 인식 부족, 그리고 소통 문제로 방역에 빈틈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다.
- 미래유산 '서울의 대장간' 무쇠장인 역사가 되다  
서울의 형제 대장간은 미래에 보존할 가치가 있는 곳으로 인정받아 서울 미래유산으로 등록된 곳이다. 아버지의 뒤를 두 아들이 잇고 있는 대장간은 허름한 작업장과 걸려 있는 수많은 연장이 56년의 오랜 세월을 말해주고 있다.

프로그램	한류에 빠지다 K컬처TV		
방송일자	2022. 03. 12.	시청률	0.005

### 【총 평】

‘생생 K컬처’는 우리 한복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는 디자이너의 ‘문화에 한복을 입히다.’를 전했다. 지난 7년 동안 300여 벌의 한복 정장을 만들어 낸 디자이너는 한글과 한복을 소재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 한복 정장과 작품 세계를 소개했다. 배우 선수 김연경, 가수 지코와 몬스타엑스 그리고 미국의 지미 팰런 쇼에서 한복 정장을 입고 무대를 펼친 BTS까지 모두 주인공의 손을 거쳤다.

‘한국을 달리는 데이브의 V-로그’에서는 3년 전 남자친구와 방문한 홍대를 다시 꼭 방문하고 싶다는 터키 팬의 사연을 받아 데이브가 홍대를 방문했다. 외국인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이색 동물 카페’와 ‘도자기 체험 카페’를 찾아 주목도를 높였다.

### 【구성 및 내용】

‘생생 K컬처’에서는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한복을 정장으로 만든 디자이너를 소개했다. 올해 서른 살이 된 디자이너는 스물네 살이었던 2016년부터 한복 정장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전주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한국의 아름다움과 한복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어느 날 친한 외국인 친구가 ‘너희 한복은 아름답지만 불편해서 평소에는 잘 입지 않느냐’고 하는 말을 듣고 한복을 정장으로 만들어 입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 때부터 한복의 원단을 가지고 양복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어렵게 완성해 낸 한복 정장을 모델에게 입혀 SNS에 올리자 한 두 사람씩 알아보기 시작했고 그의 독창적인 아름다움을 발견해 준 사람들이 연락을 해 지금의 명성을 얻게 되었다. 특히 세계적인 인지도를 얻게 된 계기는 2020년 BTS가 지미 팰런 쇼를 위해 준비한 경복궁에서의 퍼포먼스 의상을 디자인한 것이었다. 당시 쇼가 생중계로 전 세계에 방송됐는데 방송을 보던 전 세계 사람들의 호기심과 관심을 받게 되었다. 앞으로 주인공은 한복만이 아니라 ‘한국적인 것’을 최신 유행에 맞게 표현해서 알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삼일절을 기념해 태극기의 ‘건곤감리’를 운동화에 디자인한 작품을 소개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이런 작품들이 상용화 돼서 전 세계에 알려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난 7년 간 300여 벌의 한복을 무료로 대여해 준 디자이너는 아직 판매를 하고 있지 않는데 한복 정장이라는 생소한 분야를 대중들에게 알리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복의 모양에 변화를 준 개량 한복과 한복 원단으로 만든 한복 정장 사이의 대중적인 인식을 넓힌 후 적극적인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을 달리는 데이브의 V-로그’에서는 터키에 사는 팬의 사연을 받아 외국인들을 위한 홍대의 핫 플레이스를 찾아가 보았다. 미어캣, 여우, 라쿤 등 다양한 동물들과 교감할 수 있는 이색 동물 카페를 소개하고 도자기 카페를 방문해 직접 도자기를 빚어 보는 시간을 가져 시청자의 몰입도를 높였다.

프로그램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2. 03. 12.	시청률	0.050

### 【총 평】

‘베를린에서 담양까지 돌고 돌아 산골살이’ 편에서는 독일에서 귀화한 남편과 한국인 아내가 전남 담양군 옥천골에 귀농해 밀랍으로 초를 만들며 누리는 행복한 일상을 담아냈다. 공방에서 밀랍 초를 만드는 과정, 읍내에서 장보기, 해물파전을 만들어 먹는 모습 등 다양한 구성이 몰입도를 높였다. 인생에서 더 이상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보다 건강하고 편하게 행복하게 살다가는 것이 바람이라는 아내의 철학이 인상 깊었고 초 한 자루에 행복을 느낀다는 말하는 부부의 모습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었다.

### 【구성 및 내용】

1974년 국문학을 전공하기 위해 한국으로 유학을 왔다가 한국의 매력에 빠진 독일 남편은 25년 전 지금의 아내와 이곳에 자리 잡았다. 한국에 귀화해 담양 빈 씨의 시조가 되었다. 남편은 국문학을, 아내는 독문학을 전공해 서로 번역 업무를 하면서 서로를 보완해주는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다.

대나무 숲에 둘러싸인 부부의 집이 있는 곳은 정작 초기에는 야산이었다. 터를 잡은 뒤에 길을 내고 울타리를 만들어 조금씩 바뀌었다. 집은 독일식, 한국식 건축 양식과 인테리어를 섞어 만들었고 처음 오두막으로 시작한 집은 점차 확장해 지금은 공방까지 만들어졌다. 부부는 20여 년 전부터 버려지는 밀랍을 이용해 초를 만들어오고 있다. 처음에는 단순히 버려지는 밀랍이 아까워서 초를 만들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지만 독일의 다른 공방도 방문하고 배워가며 취미로 시작했던 일이 지금까지 이어졌다.

밀랍은 꿀벌이 신진대사를 통해 분비하는 물질로 상온에서 단단하게 굳어지는 성질이 있는데 이를 이용해 여러 번 정제하여 초를 만든다. 밀랍 초를 만들기까지 공정은 수작업이 어려워 기계를 만들었지만 초의 완성도와 포장에 이르기까지는 수작업을 거쳐야 한다.

일과가 끝나면 부부는 종종 밀랍 초를 챙겨 서재를 향한다. 하루의 끝에서 조용히 맞이하는 휴식 시간에는 형광등을 끄고 초로 어둠을 밝힌다. 은은한 촛불 앞에서 부부는 소담한 대화와 함께 와인을 마신다. 이들은 초가 돈도 얼마 들지 않으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고 말한다. 부부는 오일장을 방문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장도 보고, 오랜만에 친구가 방문하면 해물파전에 막걸리를 마시며 살아간다.

남편은 아내와 결혼하면서 어떤 일에 있어서도 아내를 먼저 배려하겠다는 선처사상(先妻思想)을 오랜 세월을 지키고 있다. 또 그의 이름에 담긴 한자의 뜻은 그의 삶을 그대로 반영해 ‘나그네가 숲에서 길을 찾다’라는 의미가 있다. 한국에 대한 그리움 하나로 베를린에서 담양까지 이어온 삶의 긴 여정이 깃들여져 있다. 평생을 신혼처럼 살아가며 욕심없이 조금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희망을 담은 부부의 모습이 정감 있고 편안하게 느껴졌다.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2. 03. 13.	시청률	0.000

### 【총 평】

‘친북’에서는 장기화되는 북한의 식량난과 봄을 맞아 농촌에서는 어떤 사업이 펼쳐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본격적인 농사철을 앞두고 북한은 지난 7일 관영매체를 통해 ‘반드시 성공해야만 하는 결사전의 해의 봄’이라며 경제성과에 대한 재정비를 주문했다. 대북 제재와 코로나19로 식량난이 심화되면서 연초부터 김정은 위원장은 농촌 사업의 발전을 강조하고 있으며 봄을 앞두고 식량 증산과 농촌 건설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슈텔링’에서는 1985년 역사적인 첫 만남을 시작으로 2018년도까지 이어졌던 남북 이산가족 상봉 장면을 살펴보고 현재 추진 중인 이산가족 상봉 계획에 대해 살펴보았다. 적십자사 공식 등록 인원 13만 3천여 명 가운데 8만 7천여 명이 사망하고 약 4만여 명만 생존해 있는 상황에서 남북 교류 재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구성 및 내용】

‘친북’에서는 장기화되는 북한의 식량난을 극복하기 위한 북한의 모습을 살폈다. 먼저 북한은 지난 한 해 동안 노고가 많았던 트랙터를 일제히 수리와 정비를 하는 행사인 ‘뜨락또르(트랙터의 북한말) 출동식’을 가졌다. 이처럼 트랙터를 정부에서 나서서 관리를 하고 있을 만큼 북한 현 상황에서 트랙터는 중요한 자원으로 꼽히고 있다. 북한은 그간 국방력을 키우는데 최선을 다했지만 전 세계적인 대북 제재가 이어지고 있고 또한 코로나19로 국경을 봉쇄한 후 맞이하는 세 번째 봄이다 보니 식량의 자급자족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난 해 말 개최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도 주요 의제가 농촌의 현대화와 식량 증산이었을 정도로 북한은 농촌 발전과 식량 증산에 온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슈텔링’에서는 1985년 첫 상봉에 이어서 2018년까지 진행된 스물한 차례의 이산가족 상봉이야기를 전했다. 1983년 대대적으로 열린 ‘KBS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캠페인이 촉매제가 되어, 1985년 꿈에 그리던 남북 이산가족 첫 상봉이 열렸다. 이 시기에 있었던 남한의 홍수 피해에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제안했고 그 자리에서 남북적십자 회담이 이루어져 본격적으로 이산가족 상봉이 추진되었다, 1985년 남측의 35명이 북한에 있는 51명의 가족을 만났고 북측의 30명이 남측에 있는 41명의 가족을 상봉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 15년간 다시 문이 닫히고,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이 다시 성사되었다. 지금까지 열린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총 21번이며 약 2만여 명이 가족과 재회의 기쁨을 누렸다. 헤어진 가족을 만나기 위해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한 인원은 무려 13만 3천여 명이 넘는다. 하지만 그중 8만 7천여 명은 이미 사망했고, 현재 남아 있는 생존자는 약 4만여 명에 불과하다. 이들은 80세 이상의 고령자가 대부분으로 가족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이산가족 상봉의 안타까운 현주소를 짚어 보고, 정례화의 필요성에 관해 살펴보았다.

프로그램	라떼의 정석, 끈대할매라구요?		
방송일자	2022. 03. 13.	시청률	0.057

### 【총 평】

‘스트릿 댄스 걸스 파이터’에 출연해 3위를 차지한 미스몰리가 출연해 주목도를 높였다. 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춤에 몰입하며 꿈에 도전하는 과정을 소개해 취업난, 경제난 등 어려움에 직면한 청년층에게 동기부여의 계기를 마련했다. 힙합댄스와 락킹댄스 그룹의 애로사항, 다양한 에피소드, 올림픽 응원 영상 촬영 등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다뤄 흡인력을 높였다. 젠더 갈등과 세대 갈등을 떠나 이색적인 직업인, 화제의 인물을 조명한 구성이 돋보였으며 패널들의 춤에 대한 열정과 앞으로의 포부를 담아내었다.

### 【구성 및 내용】

‘스트릿 댄스 걸스 파이터, 병아리 춤꾼 미스몰리’, ‘미스몰리, 댄스로 날다!’에서는 댄스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댄스 팀 ‘미스몰리’를 소개했다. 미스몰리는 힙합댄스와 락킹댄스를 직접 시범 보이며 춤에 대해 설명했다. 방송 출연 계기에 대해서는 곡성으로 공연하러 가는 버스 안에서 ‘스트릿 댄스 걸스 파이터’ 1차 오디션을 보러 오라는 전화를 받고 나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멤버가 16명인데 7명만 출연하게 되어 마음이 좋지 않았으며 당시를 회상했다. 출연 당시 5시에 학교가 끝나면 10시까지 학원 수업을 받고 새벽에 출연을 하러 광주에서 서울로 이동했다. 한창 바쁠 때는 1시간도 채 자지 못할 때도 많았다. 당시 멘토는 댄서 아이키였는데 끈대할매가 아이키는 신발의 종류가 아니냐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멘토 아이키는 ‘미스몰리’의 연습실을 대여해주고 식사를 챙겨주는 등 많은 도움을 주었다. 미스몰리의 한 멤버는 중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이 춤을 취미로만 하길 원했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그만두었다가 부모님을 설득해 다시 춤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학교를 오랜만에 갔더니 선생님이 출석을 부르는 데 친구가 주인공이 오지 않았다고 해 이렇게 반에서 잊혀져가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으며 친구들이 방송을 보고 이렇게 연습하느라 힘들었을 자신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경연준비를 할 때 바퀴벌레가 나타나 2시간 넘게 연습도 못하고 바퀴벌레를 잡았던 일을 비롯해 서울에서 연습실을 잘못 찾아가 만난 걸그룹 티아라를 안무가로 착각했던 일 등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미스몰리’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페럴림픽 응원 동영상을 찍었다. 올림픽 종목에 나오는 종목을 춤으로 표현하고, 휠체어 무용가와 함께 좋은 곳에서 춤을 추어 영광이었다고 말했다. 미스몰리의 한 멤버는 원하는 대학에 수석으로 입학했고 좀 더 다양한 춤을 배우겠다고 포부를 전하고, 또 다른 멤버는 모든 걸 포기하고 춤을 추겠다는 앞으로의 목표를 밝히며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 젊은이들의 계획과 자신감에 대해 칭찬하고 장래에 힘을 보태려는 기성세대의 마음이 잘 전해졌고 어린 나이에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전해 인상 깊었다.

프로그램	영상기록 진실 그리고 화해		
방송일자	2022. 03. 13.	시청률	0.003

### 【총 평】

‘증오와 학살의 반복, 예산 민간인 희생 사건’편에서는 국민보도연맹사건과 부역혐의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빚어진 비극을 조명했다. 국민보도연맹사건은 1953년 2월 3일 결성된 예산 보도연맹에서 한국전쟁 발발 직후 보도연맹원 100여 명이 예비검속 구금되었다가 퇴각할 때 모두 풀어주었지만 이 일로 상부의 질책을 받자 다시 돌아와 이미 흩어진 보도연맹원들을 수색하여 사살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 확인 결과 사건 희생자는 30명 미만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됐다.

부역혐의 민간인 희생사건은 1950년 9월 28일 수복 후 응봉지역에 있던 좌익 운동가들을 우익 청년들이 체포해서 창고에 불법 감금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수복 후 부역혐의로 살해된 희생자 534명 중 56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해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구성 및 내용】

윤봉길 의사, 박헌영 선생의 고향인 충남 예산군은 해방 후에도 극심한 좌우이념 대립으로 많은 희생을 치른 지역 중에 한 곳이다. 희생자 유족을 만나서 가족을 잃었던 70여년 전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씨의 아버지는 경성대학교를 졸업 후 서울에서 수협 조합장으로 일하고 고향으로 귀촌했다. 지식인으로 존경을 받던 중 1950년 2월 3일 예산군 국민보도연맹이 결성되고 한국 전쟁 발발 직후 보도연맹원 100여 명이 구금된다. 이후 7월 6일 퇴각이 결정되고 전원 석방을 했지만, 이후 예산 경찰은 상부의 질책을 받고 다시 돌아와 보도연맹원을 모두 수색해 구금한 뒤 사살한 후 7월 12일에 완전 후퇴하는 비극이 일어났다. 이들이 총살을 당한 장소는 대술면 화천리의 뒷산으로 밝혀졌다. 지식인 아버지와 대학 진학을 앞둔 삼촌의 희생에 대한 진실을 밝혀 두 분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마지막 소망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희생자는 30명 미만이지만 아마 더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수복 후에는 부역자 색출과 보복학살 등 더욱 잔인한 일이 벌어졌다.

○○○씨의 부친은 일본 유학 중이던 큰아버지를 통해 사과나무를 들여와 예산 지역에서 처음으로 과수농원을 시작했다. 서울에서 공부를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와 학원을 세워 농촌 계몽 운동에 힘을 썼다. 이로 인해 일제의 요시찰 인물이 되었고 온 가족을 일제가 예비검속을 하여 경찰서에서 고초를 겪기도 했다. 해방 후 남로당 활동을 하다가 보도연맹에 가입했는데 전쟁이 발발한 후 경찰에 의해 예비 검속되었다. 북한으로 가고자 했던 아버지는 1950년 11월 20일 총살되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경찰연혁사’를 통해 인민위원장 ○○○ 등 도합 780여 명을 일망타진하고 처벌했다는 기록을 밝혀 사실을 알렸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부역혐의로 살해된 희생자들 중 일부의 신원을 확인하고 예산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프로그램	한국판 뉴딜 나의 뉴딜		
방송일자	2022. 03. 13.	시청률	0.001

### 【총 평】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비대면·비접촉을 추구하면서 라이브 커머스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등장했다. 디지털 유통이 소상공인의 활력을 트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유통, 소상공인의 활력이 되다’ 편에서는 라이브 커머스를 운영하는 만두가게 대표를 초대해 그의 성공 사례를 소개했다. 경기 침체를 극복한 성공 노하우를 소개하고 새로운 판매방식인 라이브 커머스 활용법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사례로서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는 강사로 활동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협력하는 대표의 활약상을 전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었다.

### 【구성 및 내용】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사회 변화로 소상공인이 디지털 사업에 힘을 쏟는 사례를 살펴봤다.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기존 대비 2배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온라인 홍보 및 판매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만두가게 대표를 초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만두가게 대표는 좋은 상권이나 소문난 맛집의 경우에는 가게가 붐비지만 막 발걸음을 뚝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한계가 있어 이에 전국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판매를 위해 디지털 전환을 시도했다고 한다. 판매하는 제품을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상품을 직접 홍보하고 판매하고 매주 수요일마다 정기적으로 방송하고 매장 상황이나 일하는 모습을 틈틈이 소개한다. 방송 장소는 따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주변의 일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방송이 이뤄진다. 대표는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성공 사례인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소상공인들은 유명인이나 연예인들의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데 중소벤처기업부의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을 통해 섭외나 지원비용 등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디지털 전환을 통해 기존 매출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은 물론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 비중이 바뀌었다. 그동안 오프라인 매출이 90%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온라인 매출이 95% 이상을 차지한다.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제품을 많이 알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각종 SNS, 블로그 등 활동을 통한 홍보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하고 디지털 전환을 하자마자 판매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에 온라인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본인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피드백을 해주는 MD(상품기획자) 등이 필요하다. 라이브 커머스의 MD는 소상공인 업체의 온라인 홍보, 판매 등을 관리해주는데 현재 진입장벽이 많이 낮아져 MD 1명 당 수백여 업체, 상품을 담당한다.

향후 많은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등 법적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나아가 기초적인 부분부터 상품화 방법, 유통판로 등의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지원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